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 방안

1.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2. 한강수상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의 도입
3. 한강수상 이용시설 재정비방안
4. 한강수상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5.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

- 한강은 1986년에 완공된 서울시 「한강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고수부지의 정비, 하수 차집관로 설치, 저수로 정비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치수와 시민공원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한강 자체가 가진 효율성과 기능성에 지나치게 집중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민과 단절된 공간으로서 남아 있게 되었음. 즉 콘크리트 호안 조성으로 인한 생태계의 빈약, 경관 및 접근성 문제,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부분적으로 진행된 시설 배치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서울의 수경축이라는 위치적 중요성에 걸맞는 매력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근대화의 상징인 한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움직임은 한강을 점차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려는 시도들로 본격화되고 있음. 최근 새로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은 이러한 움직임과 시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2000년에 완성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수용한 최초의 한강에 대한 종합계획안으로서 주목해볼만 하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06년까지 체계적으로 한강을 '친수'의 영역으로 확장해왔음. 또한 1999년 진행된 「한강시민공원 종합관리계획」 그리고 2003년 진행된 「한강시민공원 이용활성화 계획」 역시 한강 둔치와 콘크리트 제방 안쪽의 수변으로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2004년 작성된 「한강자연성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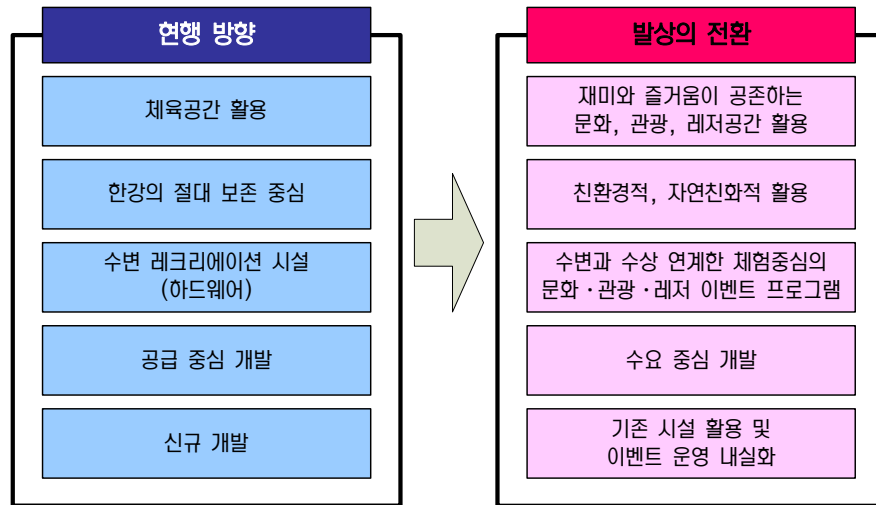
시 동일한 맥락에서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높이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제시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총 40km²의 한강 중 7km²에 해당하는 공원과 둔치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며, 새로운 분석과 접근 방법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주 5일제 근무의 정착화와 삶의 질 향상, 환경친화적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같은 조건들은 수상 문화관광 및 수상레저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한강수상이용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강수상을 이용한 교통 및 물류의 이동에 대한 요구 역시 과거와는 달리 현실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음. 특히 남북 경제협력의 가속화,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이라는 상황변화는 서해로 나가는 주요 물자의 수송로로 한강을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양도시' 서울의 비전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도 서울은 한강을 통해 '해양도시'로서 위상을 갖고 있었으며, 한강은 '해양도시' 서울의 중요한 수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한강수상이용에 대한 관심은 문화관광 및 수상레저뿐만이 아니라, 교통 및 물류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광역적 차원에서 한강의 수상이용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한강수상 이용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음. 특히 수상이용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동선을 둔치와 한강시민공원에서 한강 수상으로 이끌어 내어 시민들이 직접 물을 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움직임(Movement)을 만들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편리함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수상시설을 재배치하며(Reorganize), 해양도시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수상교통체계(Flow)를 구상함으로써 한강수상을 활용한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과 광역교통망 구상, 더 나아가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2. 한강수상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의 도입

○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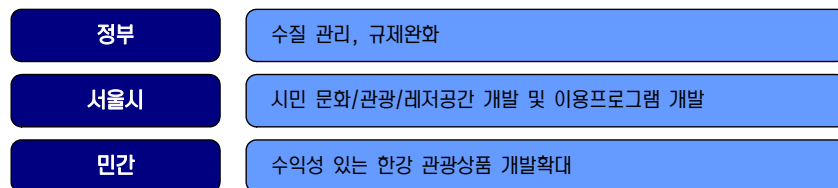
- 한강수상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의 개발방향은 기존 12개 한강시민공원을 거점으로 하여 국민소득 3만불에 적합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 특히 자연, 생태, 역사, 문화, 청정환경이 연계된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휴식, 여가교류의 장 조성을 통해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함.



[그림 1] 한강수상을 활용한 문화관광레저의 개발방향

○ 세부방안

- 한강수상 문화관광레저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하드웨어(시설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 역할분담체계의 형성, 문화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등으로 나누어 마련함.
- 하드웨어(시설중심)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의 경우, 문화 이벤트(한가위 불꽃축제), 관광 프로그램(생태크루즈, 수상식당), 수상레저프로그램(철인 3종경기, 아쿠아슬론, 요트 등)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한강수상이용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체계

- 역할분담체계의 형성의 경우, 1급 하천인 한강의 특성 상 다양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관계 형성 및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 연계함으로써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문화관광레저인프라 구축의 경우, 노들섬, 청계천, 서울숲 등 한강 주변의 문화관광거점들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기존 한강시민공원의 특성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원적 방안을 제시함.

<표 1> 한강수상 문화관광레저의 활성화의 추진방향 및 과제

기본방향	서울 이미지 강화	추진과제
문화이벤트가 살아 숨쉬는 한강만들기	이벤트가 풍요로운 문화도시	1. 광복절 한강불꽃축제
		2. 수상조형물
		3. 수상 루미나리에 퍼레이드
		4. 보행교
		5. 한강 어린이 자연박물관
		6. 민물고기 박물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한강만들기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1. 산책+피크닉코스개발
		2. 한강생태크루즈개발
		3. 여의도 샛강 생태탐험
품격높은 관광인프라 한강만들기	고급문화 관광도시	1. 한강수상식당
		2. 수상월드컵 공원
		3. 한강음악박물관건립
		4. 조각공원조성
		5. 음악분수
		6. 한강다리야경투어
		7. 한강모노레일투어
		8. 역사탐방투어
레저참여가 활발한 활기찬 한강만들기	레저활동이 활발한 체험도시	1. 아쿠아슬론
		2. 철인3종경기

3. 한강수상 이용시설 재정비 방안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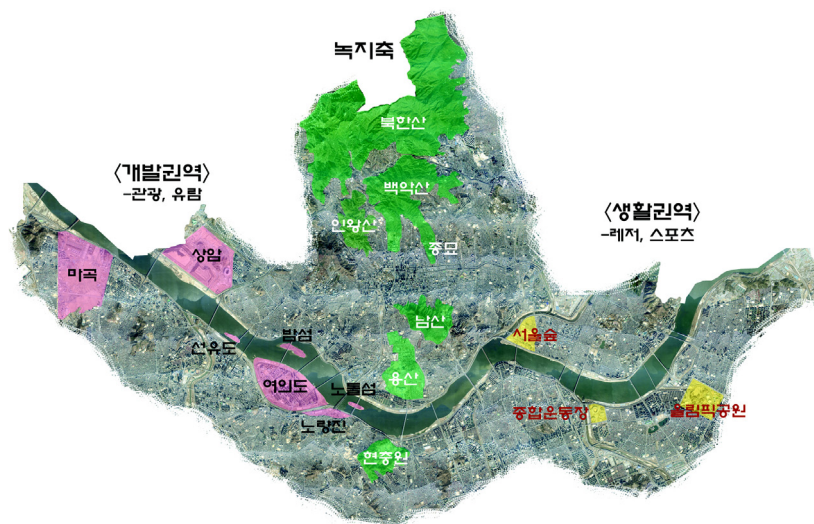
- 한강수상 이용시설 재정비 방안은 수변에 한정된 시민들의 한강이용을 수상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조성된 고수부지와 연계하여 수상이용시설을 재배치하고 수상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기존의 한강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인 치수와 이수에서 친수라는 관점을 추가하고 한강을 개발권역, 녹지축, 생활권역 등 3개 수상이용권역으로 구분하여 향후 한강의 수상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본원칙

- 우선 한강수상 이용시설 재배치의 기본원칙으로 깨끗한 수질환경의 확보, 수용력을 고려한 시설도입 및 배치, 주변지역과 연계된 시설의 조성, 수상이용 용도상충 조정, 양호한 수상경관의 조성, 수상이용의 안전성 확보 등 6개의 원칙을 수립함.
- 특히 한강수상이용과 관련하여 기존 유람선 이외에도 수상스포츠 및 레저, 물류 및 교통 등 다양한 목적별 이용의 활성화에 대비한 용도별 이용지구 및 노선지정이 필요함.
- 수상이용시설의 경우, 한강수상에 직접 접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홍수, 결빙에 대비한 수상재해의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배치와 함께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재계획을 고려함.

○ 한강수상 이용권역 구상

-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을 기준으로 한강 서쪽권역을 관광 및 유람 중심의 개발권역으로, 동쪽권역을 레저 및 스포츠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특성화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함(그림 3), <표 2> 참조).



[그림 3] 한강수상이용권역의 구상

<표 2> 한강수상이용권역 구상

구 분	성 격	개 발 방 향
생활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납, 뽕촌 등 한강변의 고대 정착지 - 올림픽공원, 잠실운동장 등 서울의 주요 문화시설을 포괄 	레저·스포츠지구 - 기존의 여가문화를 개발하여 활성화 - 서울숲,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과의 연계 강화
녹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 남산과 동작동을 잇는 서울의 중앙 녹지축과 교차 	- 역사적으로 한강의 남북을 잇는 문화유적의 복원과 연계 - 장래 중심기능 부여로 강변활동과의 연계 도모
개발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공항 및 경인운하로부터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 - 상암, 마곡 등 서울의 주요 신개발지에 면함 	관광·유람 지구 - 여의도, 선유도, 노들섬, 밤섬 중심으로 관광, 볼거리 강화 - 서울의 관문 성격 강화 및 한강 시민공원과 연계 강화

○ 한강 시민공원별 시설 재배치 방안

- 한강 시민공원별 시설 재배치 계획방향과 추진사업은 <표 3> 과 같음.

4. 한강수상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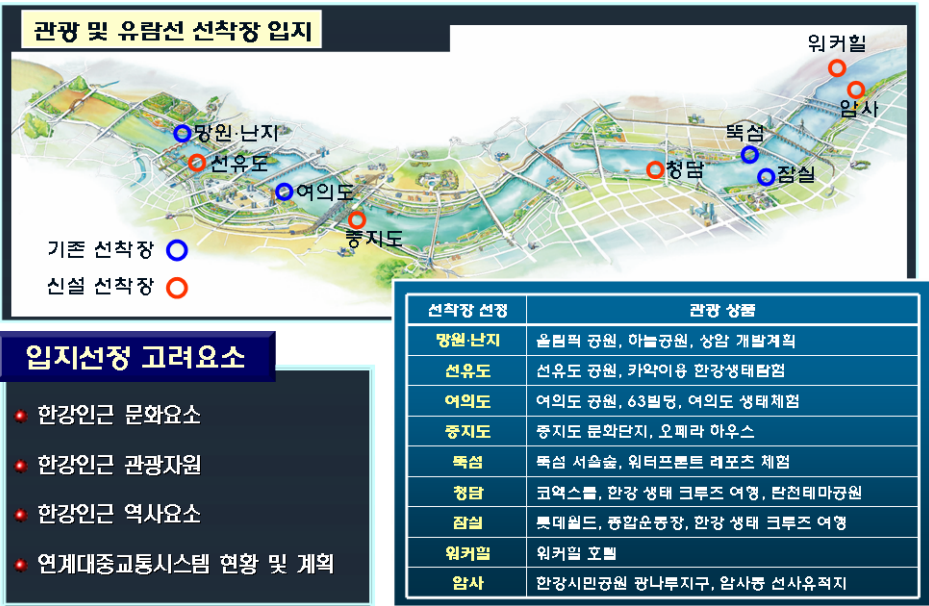
- 한강수상 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은 세계적인 수상문화관광도시 서울 건설, 그리고 친환경적 수상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한강의 잠재력 극대화를 목표로 함. 특히 수상교통에 제한적인 한강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의 분담 차원에서 제안되어 실패한 수상교통수단(수상택시, 수상버스 등)의 사례를 문화관광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수상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제한요건인 둔치로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모노레일 개설, 셔틀버스 운행, 노선버스 연장 운행 등의 방안을 검토함.

○ 단계별 추진방안

- 우선 한강수상 교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시범운영 → 환승체계 정비 및 서비스 다양화 → 수상교통망 구축이라는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함.
- 현재 한강은 수중보(잠실, 신곡)로 주운수심이 유지되고 있으며,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 서울시계 내에서의 수상교통시스템의 적용은 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둔치와 선착장의 거리, 환승체계 미비 등의 여건 상 단기적으로 수상교통시스템이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인 관점, 특히 수상이용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단계별 도입방안을 제시함.

<표 3> 한강시민공원별 시설재배치 방안 및 추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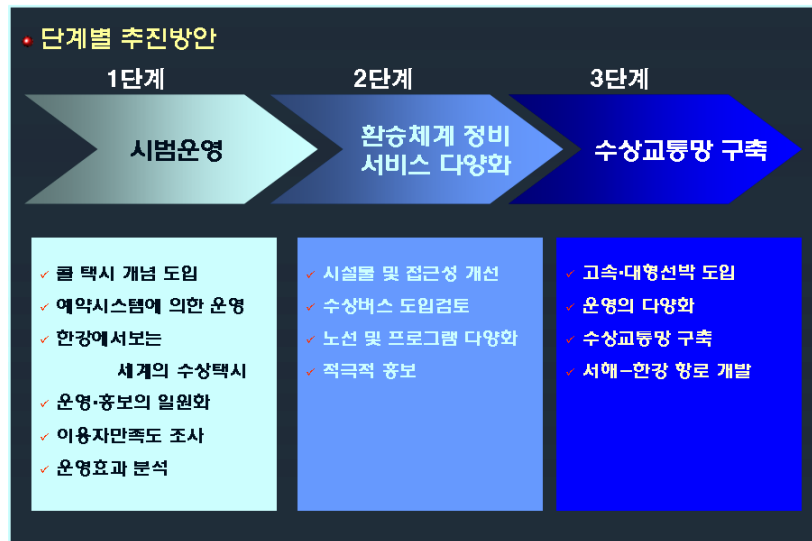
공원명	계획방향	추진사업	추진단계		
			단기	중기	장기
광나루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상이용을 억제하고 육상공간을 활용	· 통근용 수상페리정류장 · 역사생태 연계코스 조성	○	○	
잠실	주변 스포츠시설과 연계하여 국내외 수상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될 수 있도록 각종 기반 시설 조성	· 국내외 수상이벤트마당 조성 · 유람선유선장 이전 개선 · 단기유락용 수상스포츠시설 조성 · 수변학습장 조성 · 수변공연장, Waterfront park-way	○ ○ ○	○	○
뚝섬	양호한 광역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변문화시설 및 무동력스포츠시설 조성	· 무동력 수상스포츠시설 조성 · 유람선유선장 뚝섬유원지역 이전 · 백사장 조성 · 수상레스토랑 재정비 · 수상스키훈련장 망원지구로 이전 · 수변공연장 조성	○ ○ ○ ○ ○	○ ○ ○	
잠원	인근거주민들을 위한 고급 수상레저시설 및 강남업무지역 진입을 위한 수상환승시설 조성	· 동력레저기구 이용시설 조성 · 청소년 수상스포츠훈련장 설치 · 청담 통근용 수상페리선착장 조성 · 고급 레스토랑타운 배치	○ ○ ○	○	
반포	조망위주의 정적인 수상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인공적인 시설 조성 제한	· 반포천의 한강하류부 경관 개선 · 가족 유락용 수상레저시설 설치 · 서래섬 주변 경관개선	○	○	○
이촌	주변 역사문화시설과 연계된 한강역사관 및 수상관광시설 조성	· 한강역사박물관 조성 · 노들섬과의 연계 · Marina 신설 및 인근 경관 개선 · 무동력 수상레저시설 배치 · 청소년 수상훈련장 조성	○ ○	○ ○	○
여의도	한강의 다양한 수상레저·수상교통·수변문화 체험할 수 있는 복합지구 조성	· 관광중심 복합수상레저시설 조성 · Marina 신설 · 선착장 분리 조성(유람선/통근페리) · 수상레저기구 다양화	○ ○ ○	○	○
양화·선유도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을 위한 수상체험 위주의 레저 및 관광시설 조성	· 가족단위 수상이용시설 조성 · 수상훈련장 운영 · 유람선 유선장 이전	○ ○	○	
망원	서북권 주민들을 위한 수상레저공간 조성 및 잠두봉나루지역 활성화	· 잠두봉나루지역 활성화 · 기존 수상이용시설 개선	○		○
난지	수도권 광역이용이 가능한 휴양성격의 수상레저시설 조성	· 휴양수상스포츠 활성화 · Marina 신설 · 동력 레저기구 활성화 · 상암나루 접근성 개선 · 일광욕장 조성	○ ○	○	○ ○
강서	상업적 수상이용시설 조성을 배제하고, 레저 및 교육을 위한 수상활동만을 지원	· 생태환경 보호위해 수상이용 억제 · 밤섬·난지지역·습지생태공원 연계		○	○



[그림 4] 한강수상교통시스템 구축방안(관광 및 유람)



[그림 5] 한강수상교통시스템 구축방안(통근용)



[그림 6] 단계별 한강수상교통시스템 추진방안

○ 서해~한강 수상교통시스템

- 서해~한강 수상교통시스템의 경우, 크게 경인운하 노선(가칭)과 파주 오두산 노선(가칭)을 검토함.
- 경인운하노선의 경우, 현재 공식적으로 경인운하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나 동일한 노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굴포천 방수로 조성사업(굴포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2007년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구간을 확장(80m→100m)할 경우 바지선의 교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서울 시계 내의 강서구 개화동과 경인운하 구간을 연계한다면 한강에서 서해로 나갈 수 있는 주운항로 개설이 가능함.



[그림 7] 경인운하 노선(가칭)



[그림 8] 파주 오두산 노선(가칭)

- 파주 오두산 노선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정치적 제한요건이 남아 있으며, 임진강에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해 주기적인 준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운개설에 한계가 있음. 그러나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이자,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성-서울-인천이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주운항로 개설을 추진할 경우 문화관광적 가치와 더불어 지자체 간의 상호공존적 교류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5. 한강수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친환경적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맞는 한강마스터플랜 수립
 - 한강종합개발 20년을 맞아 변화된 여건에 맞는 한강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한강의 가치와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기존 개발시대에 대한 반성에 기반하여 환경, 문화, 역사, 계획, 건축, 교통, 토목 등이 망라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
- 한강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 한강에 인접한 주요 지자체들 간의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해 한강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한강주운 개설 및 한강생태계 보존 등 보존과 개발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이해당사자들이 설정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함.
- 한강수상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 심리적, 물리적 경계로 존재했던 한강수상을 이수와 친수의 대상으로, 통합의 거점으로 사고하고, 접근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간이 필요함.
 - 경제적 효과에만 집중하는 단기적인 처방 보다는 문화관광적 역량 강화와 해양도시 서울의 비전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장기적인 치유의 전략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음.

윤혁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111
yoonhr@sdi.re.kr